

Shell, 나이지리아 송유관 유출사고

AP통신, MEND 반군단체 공격 ... 가압소 3곳 중단해 원유 생산 차질

나이지리아 남부 유전지대에서 Royal Dutch Shell의 송유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에서 Royal Dutch Shell의 석유시설이 일부 파괴돼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2월1일 전했다.

Royal Dutch Shell은 트란스 라모스 송유관이 1월30일 반군단체의 공격을 받아 원유가 주변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oyal Dutch Shell은 가압소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Shell의 송유관을 공격한 나이지리아 최대 반군단체인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이 3개월 간 이어진 휴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도 채 안돼 발생한 것이다.

MEND는 중앙정부가 니제르 델타의 석유 이권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휴전을 종료하고 석유시설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MEND는 로이터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1월30일에 일어난 석유시설 공격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년여간 무장활동을 벌여온 MEND는 상당수 조직원이 우마르 야라두아 대통령이 제안한 사면 제안에 응해 전력이 크게 약화됐으나 일부 강경세력은 조직 재건을 통해 무장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2>